

朱耀燮의 小說研究

金 永 和

目 次

- | | |
|-----------------|-------------|
| I. 序 | 4. 삶과 倫理 |
| II. 作品世界 | III. 技術의 諸相 |
| 1. 貧窮의 提示 | 1. 作中人物 |
| 2. 사랑과 挫折 | 2. 背景과 視點 |
| 3. 社會意識과 批判의 樣相 | IV. 結 |

I. 序

餘心·朱耀燮(1902~1972)은 1921年「깨어진 항아리」가 每日申報에 入選되고¹⁾, 같은 해 「추운 밤」(開闢 4月号)과 「죽음」(新民公論 7月号)을 발표함으로써 作品活動을 시작했다.

1925년에는 「人力車꾼」(開闢 4月号), 「殺人」(開闢 6月号) 등 그 당시 文壇을 支配하던 傾向文學的, 프로文學的 性格을 띤 作品을 發表하여 話題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 무

1) a) 朱耀燮, 「아네모네의 마담」(서울: 汎友社, 1976), P.139.

b) 李基班, 「朱耀燮論」, 徐廷柱等, 「現代作家論」(大邱: 盤雷出版社, 1979), P.366.

럽부터 中国과 美国에서 大学과 大学院에 籍을 두어 學業을 계속하는 등 作品活動이 一時 中斷되기도 했다.

學業을 마치고 歸國해서 新東亞誌 主幹과 北京 輔仁大學 교수로 지내면서 다시 作品活動을 시작하여 1970年 「女大生과 밍크코트」(月刊文學, 6月号)를 發表할 때까지 50餘年間 斷續적으로 作品을 發表하여 왔다.

이 50餘年 동안에 長篇 4篇, 短·中篇 40餘篇을 發表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學業을 마치고 나서도 雜誌社, 大學, 新聞社 등에 從事하면서 作品活動을 했기 때문에 活動期間에 비해 作品量은 많은 편이 아니다.

20年代에 作品活動을 시작한 金東仁, 廉想涉, 玄鎮健, 崔曙海, 羅稻香, 田榮沢, 李益相 등과 같은 자리에 놓고 볼 때, 가장 넓은 空間의 體驗, 곧 中国과 美国에서의 生活體驗, 가장 넓은 社會의 活動, 곧 言論界, 學界에서의 活動, 가장 많은 修學, 곧 스탠포드大學院卒을 記錄하고 있다. 生存期間도 田榮沢과 더불어 가장 길었던 것으로 記錄될 것이다. 그런 것을 前提할 때 그의 文學的 遺産은 豊富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그는 文學 그것에만 專念한 作家는 아니었던 것 같다. 一平生 文學 그것에만 主力한 作家와 그렇지 못한 作家로 區別할 때 그는 文學을 하는 한편 다른 일에도 많은 時間을 割愛한 作家 속에 包含될 것이다. 따라서 作品量도 적고 그의 作品에 대한 研究도 아주 드문 것으로 보인다.

筆者는 그의 短篇小說의 作品世界에 대한 點檢은 一次 한 바 있다.²⁾ 이 글은 그 點檢을 바탕으로 그의 作品의 技術의 側面과 아울러 그의 一部 長篇小說도 意識하면서 綜合적으로 點檢할 必要性에서 出發한다. 한 作家의 作品을 點檢함에 있어서 作品世界의 變모와 아울러 그가 어떤 藝術的 技巧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作品效果에 어떻게 寄與하느냐 하는 것을 探索하는 것은 必要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지금 文學史, 좁게는 小說史에 대한 定立이 絶실히 要請되고 있다. 既存의 一部 小說史가 가지는 취약점이 一部의 作家, 一部의 作品에 치우쳐져 있어 全體的인 概觀과 脈絡의 連結에 상당히 困惑을 느낄 때가 있다. 이것은 個個 作家의 作品에 대한 作家研究와 作品研究가 先行되지 않은 데서 출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補完하는 方法으로 먼저 作家研究와 作品研究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그런 小說史의 定立이라는 要請에 副應한다는 뜻에서 쓰여지고 있다.

II. 作 品 世 界

2) 金永和, “社會와 人間”; 「月刊文學」, 通卷 128号 (1978年 10月号)

朱耀燮의 作品世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4段階의 變化를 보이고 있다.

第1期는 1921년부터 1932년까지 대략 12年間に 해당된다. 이 期間에 朱耀燮은 上海의 滬江大學, 美國의 스탠포드大學校 大學院에서 修學했으며 學業을 마치고 歸國해서는 新東亞誌 創刊과 더불어 그 主幹을 맡아 일했다. 이 期間에 「추운 밤」, 「죽음」, 「人力車꾼」, 「殺人」, 「개밥」, 「첫사랑값」, 「할머니」, 「진남포행」등을 發表했다.

第2期는 1935년부터 1943년까지 9年間 주로 北京에 있는 輔仁大學의 教授로 있으면서 作品活動한 期間이 된다. 「사랑손님과 어머니」, 「아비모비의 마담」, 「醜物」, 「奉天駅食堂」, 「代書」, 「도둑속의 淑女」, 「未完成」, 「복소리 둥둥둥」, 「왜 왔던고」, 「竹馬之友」, 「樂浪古墳의 秘密」등은 이 때에 發表했다.

第3期는 1946년부터 1958년까지 약 13年 동안 解放과 祖國의 分斷, 6.25事變等 歷史의 소용돌이 속에서 作品活動한 期間이 된다. 그는 相互出版社 主幹, 코리아타임즈 論說委員, 慶熙大學校 教授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小說을 썼다. 이 때에 「눈에는 눈으로」, 「大學教授와 謀利擘」, 「二十五年」, 「解放一週年」, 「이것이 꿈이라면」, 「雜草」, 「불느냐 멀어지느냐」등을 發表했고 短篇集 「사랑손님과 어머니(1954)」가 있다.

第4期는 1960년부터 1970년까지 11年 동안 國際PEN 韓國本部 事務局長과 委員長, 그리고 韓語인 리퍼블릭 理事長 등을 歷任했다. 「세 죽음」, 「열줄의 흙」, 「죽고 싶어하는 女人」, 「나는 유령이다」, 「女大生과 밍크코트」, 「비명횡사한 유령의 手記」등은 이 期間에 나온 作品이다. 또 이 期間에 創作集 「未完成(1962)」이 나왔다.

1. 貧窮의 提示

1期 小說의 共通點은 貧窮의 問題를 다루고 있다.

1921年 朱耀燮이 19才에 發表한 「추운밤」(추운밤)은 貧窮과 病에 시달리다 죽은 어머니를 두고 어머니를 돌보지 않은 아버지를 憎惡하는 少年(〈병서〉)을 등장시키고 있다. 아버지가 家族들을 돌보지 않은 것은 술과 도박 때문이요, 따라서 世上의 모든 술과 도박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이 少年은 갖고 있다.

술이 있고 그것을 마시는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人間의 삶은 貧窮과 나태 속에 빠져 不幸을 自招한다는 생각을 朱耀燮은 이 때 했었던 것 같다. 朱耀燮은 貧窮과 病에 시달리는 人間의 不幸을 人道的인 視線으로 바라보면서 그 原因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박하고 常識的인 見解를 보이고 있다. 貧窮이 題材가 되었을 뿐 그 原因에 대한 깊은 省察은 보이지 않는다.

1925年에 發表된 「人力車꾼」의 〈아쟁〉은 貧窮 때문에 “어려서는 시골서 남의 집 심부름”³⁾

3) “人力車꾼”, 朱耀燮, 「現代韓國短篇文學全集」, A-15 (서울: 文元閣, 1974), P.37.

을 했고, “상해로 끌려 들어와서는 공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쫓겨나서는 인력거를 끌게”⁴⁾ 되었다. <아쟁>은 貧窮으로 말미암아 남의 집 심부름꾼에서부터 工場의 勞動者로, 거기서 다시 人力車를 끄는 사람으로 變貌된 것이다.

人力車를 끄는 일은 重勞動이어서 8年 以上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쟁>은 알고 있다. 그러면 서도 살아갈 방도가 없어 그 길을 択했다가 결국 그도 죽고 말았다. 家族도, 돌보아 주는 사람도 없이 上海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홀로 죽어간 것이다.

貧窮 속에 있는 어느 人力車꾼의 全生涯를 要約한 것이 이 小説이고, 이 人物의 不幸은 貧窮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다. 곧 人間의 不幸은 貧窮에서 온다는 것을 한 不幸한 人力車꾼을 내세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小説이다.

이 時期를 代表할 만한 作品은 「殺人」(開闢, 1925年 6月)과 「개밥」(東光, 1927年 1月)이다.

「殺人」의 <우보>는 自覺意識이 없이 살았을 때는 環境에 順應한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끈질기게 生命을 이어간다.

삼년 전 호남에 큰 기근이 있을 때 열 여섯 살이던 우보는 열흘씩 굶어서 사람이라도 잡아 먹을듯이 눈이 뒤집힌 애비 어미에게 보리 서말에 팔리어 그 때 기근구제 도로 건축공사 십장이었던 양귀자(洋鬼子)에게 처음으로 점조를 깨트렸다. 그 때 그 어둑한 판자 좁은 방 안에서 그 쇠뿔치 같고 노란 털이 많이 난 양고자 팔에 짝짝 안기던 그 두려움, 그 부끄러움…… 영문을 모르고도 좀 대항을 해 보다가 그가 시키던 육혈포를 꺼내 헛방을 쏘면서 위협하던 것과 무서운 집에 적소리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 침승같은 가슴에 부들켜 안기던 것, 그리고는 후끈후끈한 땀, 어쩔한 아래, 아픈 허리, 그리고는 기절…… 거기서 그놈에게 연 사흘 밥을 고생하고, 그리고는 뒷동리에서 또 보리 서말을 주고 저보다 더 고운 처녀를 사왔으므로 그는 그만 쫓겨나고 말았다. 쫓겨는 났으나…… 양귀자의 심부름을 하던 노동자 하나가 양귀자에게 청하여 그날 하루 밤은 또다시 그 노동자와 같이 자고…… 그날 밤에 그는 그 노동자에게 연 세번을 거둬 치르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튿날 새벽에 허덕거리며 그래도 부모의 집이라고 뛰쳐간 때는 벌써 병석에 눕지 않으면 안 되었다.⁵⁾

이런 過程을 거치고 다시 7원에 팔려서 上海로 건너가 婦女가 된다. 그러나 그런 고통 속에서도 끈질기게 生命을 이어가면서 무엇 때문에 不幸한 것인지 그 까닭을 헤아려보지 않는다. 他意와 環境에 順應해서 살아가다가 우연한 機會에 한 젊은이를 멀리서 보고 그에게 戀情을 느낀다. 그때부터 自己의 삶을 되새겨 생각해 보고 그것이 包主에게 살과 피를 빼앗긴 때문이라는 自覺이 일어난다.

4) Loc.cit,

5) “殺人”, 「現代韓國短篇文學全集」, A·15, P.21

이 作品은 그 題材가 貧窮의 問題다. 그는 이 作品에서 人間의 悲劇과 不幸은 貧窮과 環境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提示하고 있다. 그러나 貧窮의 原因에 대한 論理的 思弁的 追求는 없다. 이 不幸한 人間에 대한 憐憫의 情과 人道主義的 視線을 보내면서 이런 비극과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意識이 있다. 따라서 그 原因을 社會構造의 모순에서 찾는 다든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의 갈등과 투쟁을 통해서 찾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같은 해 (1925) 에 발표된 金東仁의 「감자」와 비슷한 樣相을 보여준다. 「감자」의 주인공 <부녀>도 貧窮과 環境 때문에 점차 轉落해 간다. <우포>의 轉落이 보다 他意가 강한 반면 <부녀>의 경우는 自意가 다소 介在되었다는 차이뿐 그들이 轉落過程은 비슷한 데가 있다.

그런데 이 두 小說이 모두 轉機를 이루게 되는 動機는 그들이 廻해 있는 環境과 不幸에 대한 自覺이 아니라 戀情이 싹튼 데서 시작된다. <부녀>가 <왕서방>이 장가가는 날 하얗게 분을 바르고 <왕서방>을 찾아간 것은 질투 때문이지 經濟的 損失을 意識한 行動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포>도 어려운 環境과 불행을 견뎌오다가 戀情이 싹트면서 自覺意識이 일어나고 그것이 殺人으로 비약하는 契機가 된 것이다.

「개밥」은 잘 사는 사람의 집에서 家政婦로 일하는 사람의 애기다. 집 主人이 개를 한 마리 사다가 우유를 먹이고 쌀밥과 고기국을 먹이는 것을 보고 家政婦인 <어멈>은 그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녀에게는 세 살난 어린 딸이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 營養失調에 빠져 있지만 고기국은 커녕 쌀밥도 먹이지 못하고 있다. 사람도 먹지 못하는 것을 개가 먹는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인데 개는 그것조차 제대로 먹지 않는다.

처음 며칠 동안 개가 흰밥 고기국을 잘 먹지 않는 동안에 어멈은 한편으로는 불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슬그머니 좋은 일이었다. 그것은 주인 아씨가 개앞에 한 번 놓았던 밥은 내다버리라고 어멈에게 명령하는 까닭이었다.

어멈은 그 흰밥 고기국을 내버릴 수는 없었다. 그에게는 세살난 귀여운 딸이 있었다. 행랑방 어둡고 더러운 방구석에서 혼자 울고 웃고 증얼거리고 잠자고 꿈꾸는 이른 딸 단성이가 있었다. 첫날 개가 달치지도 않은 개밥을 들고 행랑으로 나와 어멈은 그 밥을 단성이에게 주었다. 단성이는 세상에 난 이후로 흰밥 고기국이 처음이었다.

오죽이나 맛있게 그가 그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으랴! 머우기 과한 노동으로 팔미암아 어머니 젖에서 젖이 잘 나지를 앓으므로 젖도 변변히 못 얻어먹고 자란 단성이에게는 이 흰밥 고기국 한 그릇이 그동안 쌓였던 영양불량을 한꺼번에 모두 회복시킬 수 있을 것같이 맛나고 좋은 음식이었다. 그럴 때도 맛나게 그릇 밑까지 핥는 단성이의 조그만 모양을 볼 때 어멈은 눈물이 나도록 기뻐했다. ^이

사람보다도 개에게 더 맛있는 飮食을 먹이는데 憤慨하면서도 <어멈>은 개가 飮食을 남길 때

6) 「개밥」 上揭書, P.58

마다 그것을 가져다가 딸과 男便에게 먹였다. 그러나 개가 건강을 회복하자 飮食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 버렸다. 딸은 더 달라고 조르고, 개는 다 먹어 버리고, 그래서 개가 먹는 飮食을 좀 얻으려다 개와 싸움이 벌어진다.

개밥공기를 들어서 국물을 좀 국그릇에 쏟으려 하니, 다 자란 개는 제 밥을 한 때았기겠다고 어멈을 향하여 달려들었다. 그 서술에 어멈이 들었던 밥그릇이 내려지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어졌다. 단성이를 먹이려던 흰죽이 겨울날 언 땅에서 질퍽하게 덮이어 거기서 김이 문문 났다. 어멈은 개를 너무나 께셈하다고 생각하였다.

『국 국물 조금 얻어 갈래는데, 이 망할 놈의 개새끼』하면서 그는 개밥공기로 개를 향하여 내갈기었다. (中略)

밥공기로 얻어맞은 개는 저도 지지 않겠다는 듯이 달려들어 어멈의 팔을 덥씩 물었다. 어멈은 통분과 본능적 자위심과 복수심으로 온몸이 떨리었다. 그의 앞에는 세상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다못 개 한 마리가 보일 따름이었다. 어멈은 달려들어 개 허리를 두 다리 새에 끼고 언 땅위로 뺨 굴었다. 그리고 그 억센 이로 개 몸뚱이를 닥치는 대로 물어 뜯었다. 어멈이 개한테 물린 팔에서 피가 흐르고 개 몸뚱이에서도 이곳저곳 어멈에게 물린 곳에서 피가 흘렀다. 피투성이가 된 두 동물은 미친듯이 서로 썩썩거리면서 뚝 위에 뺨 굴었다. (中略)

어멈도 여기저기 여러 곳을 그 개에게 물리었다. 어멈 의복은 새빨갳게 피로 물들었다. 개가 이미 맥이 없어져서 어멈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대항을 못하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냥 개를 물어뜯던 어멈이 우연히 마당 한가운데 허엿게 엎어 붙은 흰밥에 고기국을 보았다. 그에게는 단성이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며 날어진 개 몸뚱이리를 내버리고 그곳으로 달려갔다.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그 개밥 덜어붙은 것을 꺾어 모아쥐고, 나는듯이 그는 행랑방으로 나아갔다. 방문은 아까 열고 나간 채로 열려 있었다. 방안은 바깥처럼 추웠다.

『단성아! 자, 흰밥에 고기국 가져왔다 …… 애, 단성아! 단성아!』하는 어멈의 말소리는 너무 컸다.

단성이 입에서는 영 대답이 없었다. 그의 곱게 감은 눈은 영영 다시 뜨지 않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감은 것이었다. 7)

먹을 것을 놓고 서로 때았으려는 人間과 개와의 死力을 다한 싸움은 人間이 動物의 水準으로 転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理由는 貧窮에 있다. 그러나 朱纘雙은 貧窮이 人間을 어떤 狀況으로 몰고가는가를 提示하고 있을 뿐, 그 原因에 대한 追求는 보여주지 않는다. 더구나 그런 貧窮에 대한 처방이나 解決策을 提示하고 있지도 않다.

朱纘雙의 1期 小説은 그 主流가 貧窮의 問題를 提示하고 있는 데 있다. 그러나 위에서 檢討한 대로 그 原因을 구하거나 解決策을 提示하는 것도 아니다. 貧窮의 原因을 個人的인 次元的

7) 上掲作品, PP. 64 - 66

問題나 社会的인 次元의 問題로 把握하고 있다는 뚜렷한 根拠도 없다. 따라서 이런 問題提示를 社会的 現象에 눈은 結果라고 보는 見解⁸⁾은 지나친 擴大解釋이다. 다만 崔曙海의 小說과 더불어 小說의 素材가 그 以前의 作家들과는 다른 貧窮과 그 속에서 動物처럼 살아가는 人間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색다른 傾向⁹⁾ 이기는 하다. 이런 傾向은 1923年을 前後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現象이다. 그것은 傾向文學의 代表者라는 崔曙海의 作品 뿐만 아니라 玄鎮健의 「운수 좋은 날」 (開闢, 1924.6月), 「私立精神病院長」(開闢, 1926.6月), 金東仁의 「감자」(朝鮮文壇, 1925年1月), 桂鎔默의 「人間蜘蛛」(1928) 등도 마찬가지다. 貧窮의 原因이 追求되고 그 解決策을 作品을 통해 具現시킨 것이 아니라 貧窮의 現象을 各 作家의 解釋에 따라 다르게 表現했 을 뿐이다.

2. 사랑과 挫折

第2期의 小說들에 드러나는 特徵은 사랑과 挫折의 問題다.

「사랑손님과 어머니」(朝光, 1935年1月)는 스물네살의 靑孀寡婦인 <옥희엄마>와 <사랑 손님>과의 戀情을 그린 小說이다. <사랑손님>이나 <옥희엄마>나 다 같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結合하고 싶은 衝동이 일어난다.

『그 꽃은 어디서 왔니? 꺾 줘구나』(中略)

『응, 이 꽃 저 사람 아저씨가 엄마 갖다 주라고 줬』

꽃을 들고 냄새를 맡고 있던 어머니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엇에 놀란 사람처럼 화다닥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금시에 어머니 얼굴이 그 꽃보다도 더 빨갛게 되었습니다. 그 꽃을 든 어머니는 손가락이 파르르 떠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무서운 것을 생각하는 듯 이 방안을 휘 한번 둘러보시더니,

『옥희야, 그런 걸 받아오문 안돼』

하고 말하는 목소리는 몹시 떨렸습니다. (中略)

어머니가 그 꽃을 곧 내버릴 줄로 나는 생각했었다마는 내버리지 않고 꽃병에 꽂아서 풍금위에 놓아두었습니다. (中略) 꽃이 다 시들자 어머니는 가위로 그 대는 잘라버리고 꽃만을 찬송가 갈 피에 곱게 끼워두었습니다.¹⁰⁾

<사랑손님>이 주었다는 꽃을 받는 순간부터의 <옥희엄마>의 反應이다. 단순히 異性이 보낸 것이라고 생각한 미서 온 反應이 아니다. 꽃을 주는 意味를 혼자 想像한 미서 온 反應이다. <사랑손님>이 보낸 꽃을 꽃병에 꽂고 찬송가 갈피에 끼어넣는 것은 <옥희엄마>가 <사랑손님>

8) 金基鎮, “文壇最近의 一傾向”, 「開闢」, (1925.7), p.125.

9) 上揭論文, P.124

10) “사랑손님과 어머니”, 朱耀燮等選集, 「新韓國文學全集」, 6 (서울: 語文閣, 1975), P.325.

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사랑손님>이 <옥희>를 말처럼 귀여워 하고 자신의 心情을 적어서 밥값과 함께 보내고 끝내 뜻을 이룰 수가 없음을 알자 그 집을 떠나는 것도 <사랑손님>이 <옥희엄마>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두 사람의 戀情은 <옥희엄마>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데서 끝나고 만다. <옥희엄마>도 <사랑손님>을 사랑하고 있으나 因襲과 既成倫理를 깨뜨릴 수 없어서 結合을 포기한다.

『옥희야, 옥희 아버지는 옥희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돌아가셨단다. 옥희두 아빠가 없는 건 아니지, 그저 일찍 돌아가셨지, 옥희가 이제 아버지를 새로 또 가지면 세상이 옥을 한단다. 옥희는 철이 없어서 모르지만 세상이 옥을 한단다. 사람들이 옥을 해, 옥희 어머니는 화냥년이다, 이리구 세상이 옥을 해. 옥희 아버지는 죽었는데 옥희는 아버지가 또 하나 생겼대, 참 망측도 하지, 이리구 세상이 옥을 한단다. 그리 되문 옥희는 언제나 손가락질 받구, 옥희는 커두 시집도 훌륭한데 못가구, 옥희가 공부를 해서 훌륭한게 돼두, 예 그까짓 화냥년의 딸이라고 남들이 옥을 한단다』¹¹⁾

세상 사람들의 옥을 두려워하는 것은 既成倫理에 얽매이고 있다는 뜻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낡은 倫理에 지나지 않지만 이런 既成倫理에 얽매어 사는 사람들의 悲劇과 슬픔은 오히려 統者들의 마음에 感傷的 파문을 일으킨다.

「아네모네의 마담」(1936)의 專門學生은 教授의 夫人을 사랑하고 있으나 既成倫理가 이를 許容하지 않기 때문에 絶望하고 있다. 「醜物」의 <언넌이>는 人物이 못생긴 데서 남편에게 소박 맞고 심지어는 물장수에게조차 버림을 받는 挫折을 맛보고 있다. 「왜 왔던고」의 <진형> 이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연인이 돈많은 사람에게 팔려가는 것을 구할 수 없었다. 20여년 동안 만주, 몽고, 시베리아 등지를 떠돌아다니다 나이가 많은 후에 옛 愛人을 만났으나 오히려 냉담한 그녀를 만난 순간부터 挫折感에 빠진다.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옥희엄마>와 「아네모네의 마담」의 <전문학생>의 사랑의 喪失은 既成倫理의 벽에 있고, 「醜物」은 얼굴이 못생긴 데서, 「왜 왔던고」는 긴 時間이 破綻을 맞본다. 결국 사랑과 挫折이 이 時期의 小說들의 共通點이다.

이와 같은 사랑과 挫折은 20年代에 朝鮮文壇에 連載하다 중단된 「첫사랑 값」과 脈絡이 닿아 있다. 上海에 遊學중인 한 靑年이 中國 女學生을 사랑하게 되면서 使命感과 民族感情으로 苦惱하다가 끝내는 죽어야 했던 것도 사랑과 挫折의 問題다.

이것은 20年代의 「빙어리 三竜이」등 사랑과 挫折의 問題를 다루었던 羅稻香의 世界¹²⁾ 와도 一脈 相通한다.

11) 上揭書, P.328.

12) 金永和, "20年代 愛情의 風俗", 「現代韓國小說의 構造」(서울: 泰光文化社, 1977), 參照

특히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30年代 韓國小說 가운데 佳作으로 꼽혀 小說史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作品은 단순히 사랑과 挫折을 그렸다는 것만이 아니라 “抒情의이고 藝術的 香氣가 높은 佳作”¹³⁾ 이고 “抒情的 로맨티시즘을 본체도에 올린”¹⁴⁾ 作品이며 “浪漫的 戀情을 藝術的으로 승화시킨 作品”¹⁵⁾인 동시에 “文學的 향기를 흠뻑 느낄 수”¹⁶⁾ 있는 作品이라는 讚辭들을 받고 있다. 특히 사랑의 挫折이 倫理的인 메서 오는 것이 이 作品의 하나의 特徵이다. “戀情과 倫理的인 問題를 그린”¹⁷⁾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作品만큼 抒情的 浪漫的 분위기 속에 아름답게 처리된 作品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가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많은 小說들을 남기고 있지만 “그의 唯一한 代表作”¹⁸⁾으로 評価받고 있는 것도 이 作品이 사랑과 挫折을 아름답게 昇華시킨 完熟性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3. 社會意識과 批判의 樣相

第3期의 特徵은 解放後 無秩序하고 混亂된 社會를 告發 批判한 것이 主流을 이룬다. 따라서 藝術的 香氣보다 社會意識이 있는 作品들을 내놓았다.

「大學教授와 謀利輩」는 이 時間의 作品世界를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의 例가 될 것이다.

고요한 밤에 어린것들을 옆에 나란히 눕혀 놓고 강의준비를 하던 시절, 정치적 자유와 학문하는 자유는 물론 거부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력저력하는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고양이처럼, 자유를 찾으려고 주인집을 뛰어나가 돌아다니다가 며칠 못가서 굶는 자유보다도 구속받으면서도 목숨을 이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자각하고 도로 주인집으로 기어들어왔다는 그 고양이처럼,

그 당시 정세로 보아서는 단지 하나의 희망적 관념이기는 했지만, 언젠든 일본이 망하는 날이 오려니 일찍 광명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민족의 젊은이들에게 절름발이 교육이나 배푸는배 자궁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임무라는 자각을 가지고 그날 그날을 참고 견디어 왔던 것이었다.¹⁹⁾

한 大學教授가 直說的으로 진술하는 이 部分은 解放과 獨立에 대한 期待가 상당히 컸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와 같은 것은 비단 이 小說의 主人公 뿐만 아니라 朱耀燮 自身도 마찬가지였을 것

- 13) 趙演鉉, 「現代小說의 理解」(서울: 一志社, 1972), P.172.
 14) 任軒永, 「韓國近代小說의 探究」(서울: 汎友社, 1974), P.96.
 15) 張德順, 「韓國文學史」(서울: 同和文化社, 1975), P. 384.
 16) 尹柄魯, “朱耀燮篇”, 「現代作家論」(서울: 宣明文化社, 1974), p.129.
 17) 金字龜, 「韓國現代小說史」(서울: 宣明文化社, 1968), p. 221
 18)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서울: 人間社, 1961), P.587.
 19) “大學教授와 謀利輩”, 「新韓國文學全集」, 6, P.350.

이다. 더 나아가 이 小説의 主人公의 陳述이 朱耀燮의 생각을 그대로 陳述했을 可能性도 있다. 그것은 解放을 期待했던 韓國民이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누구나 바랐던 期待이다.

植民地 아래서도 언젠가 獨立이 될 날을 기다리면서 젊은이를 教育했던 이 小説의 主人公은 당시 良心的인 韓國人 教育者들이면 누구나 가졌을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解放이 되자 이런 期待가 무너지면서 갈등이 일어난다.

그런데 오늘? 해방, 자유, 독립의 환상을 그리며 미친듯이 감격했던 그날부터 이태가 지나지 않은 이 때 긴긴 밤에 전깃불이 일초도 안들어오고, 초 한 자루 값이 사십원, 사십원이 아쉬워서 촛불조차 못켜고 어둡고 추운 방에 우두커니 앉아서 팔랑개비처럼 한곳으로만 도는 정신적 혼돈을 되풀이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분노와 자포자기 몸이 떨리고 현기증이 나고 담배 콩초라도 있었으면! 20)

解放後의 社会와 現實은 政治的 混亂과 經濟的 窮乏, 社会的 無秩序 속에 빠진다. 이때 이 作家의 눈에 批判的으로 드러나는 것은 指導者와 官吏들의 腐敗와 墮落, 良心의 喪失이다. 同時에 그것은 “知識人 社会的 非道德的인 生態” 21)에 대한 준열한 批判이기도 하다.

외국 군대보다 더 썩어빠지고 비루해진 동족을 마구 저주해주고 싶은 심정으로 그날그날을 보내는 그였다. 소위 지도자라는 것들이 자기의 민중을 이렇듯이 무자비하게 속이고 착취하고 견어차 버린 전례가 역사상 또는 지리상 어디 언제 또 있었는가? 22)

民衆을 속이고 擄取하는 指導者에 대한 直說的인 告發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한 教授의 意識을 통해서 당시의 現實의 暗澹함을 表現한 部分이다. 좀더 具體的으로 당시의 官吏들의 腐敗를 다음과 같이 陳述하고 있다.

『소위 지도자들 또는 관리들은 이 돈봉치 열개 스무개도 더 되는 뇌물을 안겨주어야만 서류에 도장을 찍어준단 말야. 그 개자식들하고 술자리에 앉아서 하루저녁 쓰는 돈의 심분지 일도 못되는 돈일세』

『모리배보다도 더 진저 악질은 탐관오리들이야. 똑바로 말하자면 탐관오리는 제일 머러운 쓰배 기봉이요, 모리배는 정정당당한 상인이지. 탐관오리는 법률상으로 보나 도덕상으로 보나 불림없는

20) 上掲作品, PP.350 - 351.

21) 申東旭, “朱耀燮의 作品世界”, 朱耀燮, 「사랑숨과 어머니」(서울: 正音社, 1978), P.404

22) “大學教授와 謀利輩”, P.351.

23) 上掲作品, PP.352 - 353.

죄인이지만, 모리베는 권력가가 억지로 제정해 놓은 법률에는 위법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자가 절대 아니란 말이야』²⁴⁾

이와 비슷한 陳述은 이 時期에 나온 다른 作品에서도 볼 수 있다.

요새 관리들은 왜정때 비해서 하나도 나을 것이 없고 도리어 더하단 말요, 무슨 일이구간 얻어먹고 뇌물받고 봐준단 말야, 허 이진 왜정시대에는 관리들이 얻어 쳐먹기는 해도 먹으니만큼 상당히 일을 해줬고 친하게 굴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미군정은 개차반이야.²⁵⁾

美軍政時代의 官吏들의 腐敗를 植民地時代보다도 더욱 나빠졌다고 意識하는 것은 이런 狀況을 客觀的 歷史的으로 바라볼 때 다른 見解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重要的 意味를 가진다. 外國人이 아닌 同族의 腐敗와 擄取가 더욱 아프게 느껴지고 憤怒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그만큼 背信感이 더 컸기 때문일 것이다.

官吏들의 腐敗와 더불어 당시 社會의 혼란과 무질서를 다음과 같이 陳述하고 있다.

영어 마디나마 주절덜 줄 이는 자들은 모두 다 엠피 통역이라나 뭐라나 하는 것을 해서 막 수가 난다는데, 골센님일 우리 애아버지는 영어는 남들보다 잘하는 축이면서도 미국놈과는 맞서기도 싫다고 하니 참 괴상한 성미야, 그 혼란 일본집 한 채 접수 못하고, 남들은 영어라고는 에이 비셔도 모르면서도 통역을 끼고 일본집은 물론 공장들까지 마구 접수하는데,²⁶⁾

지금 우리나라는 생지옥이야 지옥! 질서도 없구, 절조도 없구, 자존심도 없구, 그저 아무 짓을 해서라도 돈만 모으면 제일 잘난 사람이거든, 흥 모리베라구? 그럼 어때? 장혀간다구. 장혀가문 어때? 검사국에서야 어쨌든 재판소에서는 으베 버젓이 무죄판결로 석방돼 나오는데, 이게 소위 민주주의라는 거거든, 나두 널부터 모리베 뒤꽂무니나 따라 다닐까? 남들은 다 하는데 나 혼자 독야청청한다고 누가 나에게 상줄까? ²⁷⁾

해방 직후 한동안 기차는 몹시 느리고 불규칙하였다. 지루하게도 머물러 있던 한 정거장을, 겨우 떠나면 덜컹덜컹 좀 가다가는 산중에다 맥 세워놓고는 까딱하면 거기서 밤을 새우기가 일수였다.

기차가 하도 오래 서 있으므로 조사해 보았더니 기관수가 잔칫집에 가서 술이 취하여 코를 드르렁 드르렁 끌고 있더라는 이야기도 있고 기차를 증도에 세워놓고 승객으로부터 약간씩의 팁을 강요하여 돈을 받고야 다시 움직일 일도 있었다.²⁸⁾

24) 上掲作品, P.352.

25) “解放一週年”, 『新韓國文學全集』6, P.355.

26) 上掲作品, P.354.

27) 上掲作品, P.355.

28) “입을 열어 말하라” 『現代韓國短篇文學全集』, A - 15, P.180.

이런 陳述을 통관해서 흐르는 것은 社會의 混亂과 不正 腐敗를 거의 신경질에 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作家의 現實과 社會에 대한 關心과 그 意識의 所産이다.

이때에 나온 「二十五年」이라는 小説도 그 主調는 비슷하다. 지식청년들이 3.1運動에 가담했다가 挫折되자 上海등 外國으로 放浪하다가 混亂된 解放後의 社會 속에 놓이게 되었을 때의 意識이 그려져 있다. 이들은 解放後 歸國해서 大學教授와 音樂家와 牧師가 된다. 大學教授와 音樂家와 牧師는 社會의 指導層이다. 이들의 무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그 社會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大學教授는 英文翻譯 原稿料를 받기 위해 미군 지불청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려야 했고 牧師는 토건회사 통역노릇을 해야 했으며, 音樂家は 미군상대의 연주를 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이 作家가 解放後 韓國現實을 보는 눈은 상당히 絶望的이다.

朱耀燮의 解放後의 韓國社會와 現實에 대한 意識과 批判 告發은 깊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朱耀燮의 경우에만 이와 같은 世界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러한 批判은 蔡萬植 小説에서도 상당히 많이 드러난다. 蔡萬植의 「孟巡查」(1946), 「미스터 方」(1946), 「歷路」(1946), 「논 이야기」(1946), 「도야지」(1948) 등의 小説에서도 解放後의 混亂한 社會相을 비판하고 있다.

朱耀燮의 이 時期의 小説은 日常의 生活感情을 小説化하고 있어 깊이 있는 問題를 追跡하고 그 底辺에 있는 意味를 形象化하지 못한 느낌이 있다. 日常人이면 누구나 겪고 느끼는 것을 文章化한 것 이상의 것을 提示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新聞을 뒤적이면 누구나 알게 되는 社會와 現實이 그대로 複写된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文學은, 特히 小説은 社會와 時代의 模放과 反映이라는 점을 前提할 때, 이들 小説을 통해서 우리는 한 時代의 모습을 본다. 그 모습은 이 作家의 社會意識의 線相을 드러내 보여주며 그의 作品世界의 變貌의 軌跡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삶과 倫理

第4期 小説들은 대체로 人生의 問題, 죽음 앞의 人들 人들의 意識의 問題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人生을 어떻게 사는 것이 價值있는 삶이나 하는 倫理問題도 다루어지고 있다. 人生과 社會를 觀照하고 담담하게 人生論을 펴는 듯한 인상마저 있다.

「세 죽음」은 세 사람의 죽음과 살아 있을 때의 그들의 行跡을 드러내고 人間이 얼마나 淺薄해질 수 있는가, 人間이 얼마나 거짓과 狡猾과 不貞 속에 살다 가는가를 보여주어 삶의 意味를 생 각케 해주는 作品이다.

第1人物 <박만용>은 젊었을 때 滿洲의 獨立軍에 있었다. 그런데 동료인 <마충성>에게는 언제나 뒤진다. 게다가 <마충성>에게는 愛人이 있었다. <박만용>은 그 女子가 탐이 났다. 그래서 <마충성>을 죽이고서 戰死했다고 報告한 후 그의 愛人을 겁탈하고 말을 듣지 않자 죽여

버린 人物이다. 解放後 歸國해서 不正한 方法으로 致富한 후 建國勳章을 받기 위해 모든 수단을 動員한다.

그가 건국훈장을 노리기 시작한 것은 거의 이십년 전인 해방직후 부터였다. 그러나 그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청산리 싸움터에서 싸운 일이 있고 독립군 군인들중 단 한 명이라도 살아 있어 남한으로 돌아왔으면 설불리 손을 대서는 안된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전투의 지휘관으로 있었던 거물급들이 남한에 생존해 있는 한 그는 위조증거물을 공개할 수 없었다. 그들 거물이 어서 죽거나 미치기를 바라고 있어 온 것이었다. 그러면서 한편 돈을 모으는 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정력과 시간을 퍼부었다.

그 거물이 죽자 그는 증거물을 꾸미고 또 증언할 꼬나붙들을 수십명 매수하고 기르는데 성공했다 29)

이런 <박만용>이도 建國勳章을 받은 순간부터 그가 죽어버린 <마충성>과 그의 愛人이 幻想과 만난다. 그는 그 幻想을 떨쳐 버리려고 독한 위스키를 마셨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런 시간이 계속되는 가운데 거의 癡狂狀態에 이르고 끝내 죽어갔다.

第2人物인 <천덕자>는 妓生出身이다. 그녀를 거쳐간 사나이는 무수히 많다. <박만용>이 독립군 장교로서 만주 벌판에서 험격한 功을 세웠다는 것, 아니 그것보다도 전강한 體軀와 돈이 많다는 것에 끌려 그와 同居生活을 시작한다. 남편은 친하 오입장이지만 자기는 스스로 貞操를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나서도 誘惑에 저서 不貞을 계속하다 自殺하고 말았다.

第3人物은 <김아부> 30)도 평생을 僞善과 거짓과 阿諛 속에 살다가 죽는다. 그의 人物 됄됨은 다음과 같은데 드러난다.

『나는 삼십여년간 문필생활을 해왔단 말야… 딴 놈들은 기껏해야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 한가지만 쓸 능력을 가졌지만…… 나는 말이지…… 서정시, 서사시, 단편소설, 중편소설, 장편소설, 수필, 평론, 논문, 희곡, 기행문,…… 난 말이지 테마만 잡으면…… 어떤 양식의 글이구…… 취척 다 쓴단 말야…… 그런데도 문화훈장이 그 엉터리……』

『장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추송> 두 <인간 우동>두 쓰시구……』

『그래 그런 걸 쓴 게 뭐 잘못이란 말이나…… 수백 명 문인들이, 똑같은 <인간론>을 썼지만…… 그래 나보다 더 잘 쓴 놈이…… 한 놈이라두 있단 말이나……』

『장하십니다, 아버지 <대일본제국 천황 폐하 성수무강> 헌시도 제일 잘 쓰셨고, <약소민족의 해방자인 대원수 스탈린에게 드리는 감사문>도 복한 문인 누구보다도 더 잘 쓰셨지요, 그리고 <김일성 장군 만수무강> 헌시도 복한 문인 누구보다도 더 잘 쓰셨고, 평생 최대 걸작을 썼노라고 뽐내고 돌아가셨지요……』

29) “세죽음”, 上揭書, P.297.

30) 이것은 아펠레이션부터 離險的이다. 作家는 그것을 意識하고 命名한 듯하다.

월남에서는 곧 <민족의 태양 국부 이승만 대통령> 찬가를 남한 문인 누구보다도 더 잘 쓰셨고, 학생 혁명으로 이승만이 몰려서자 누구보다도 숭선하여 <사월의 영웅들에게 보내는 찬가>를 쓰셨으며……」³¹⁾

詩를 쓴다는 <김아부>는 위에 인용된 그대로 淺薄하게 살다가 文化勳章을 노렸고, 그러나 그것도 받지 못해 슬주정하고 아들과 다투다가 죽어갔다.

人間의 醜相을 여지없이 그려낸 것이 이 小説이다. 결국 人間은 죽고 마는 것인데 이런 醜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作家의 批判과 嘲笑가 있다.

「나는 유명이다」도 人間이 얼마나 醜惡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교통사고로 어른이 죽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측 유가족에게 일금 삼십만원 보상하면 그만이라는 법규가 있다. 그러나 난지 석 달이 채 안된 예기가 그것이 교통사고가 아닌 간판사고로 죽은때 대해서는 보상금 규정이 아직은 없었다. 예기 시체를 사망실에 방치한채 양쪽 육신 자신이 그칠 줄을 몰랐다.³²⁾

상점의 간판이 날아 떨어지면서 마침 그 근처를 걸어가던 애 업은 젊은 부인이 언어맞고 쓰러지면서 예기가 죽었을 때 어른들(人間들)이 벌이는 희극을 고발한 것이다. 人間에 대한 嫌惡는 이 作品中에서 <세 죽음>에서와 같이 다루어 지고 있다. 특히 神과 人間과의 關係에 있어서도 모든 것은 人間에 귀착된다고 보는 것 같다.

유명뿐만 아니라 본디부터 존재해 온 신들 예를들면 하느님, 율왕상제, 부처님, 에호바, 알라등이 다 인간을 천자처럼 사랑한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제물을 더 많이 바친다고 복을 내리고 반면에…… 제물을 조금 바친다고 해서 화를 내리는 것은 아니다. 제물의 적고 큰 것으로 마음이 좌우될 만큼 웅활한 신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착하게 되거나 악하게 되거나 잘살거나 못사는 건 오직 인간자체에 달린 문제다.³³⁾

이것도 다분히 說敎的 常識의이지만 人生을 觀照한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모든 것은 人間自体에 달려 있는데, 人間은 그 屬性이 善하고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慨歎하고 있는 듯싶다.

「열죽의 흙」은 美國으로 移民을 간 한 老人이 祖國을 떠날 때 몸에 지니고 갔던 「흙」과 그

31) “세죽음”, PP.309 - 310.

32) “나는 유명이다”, 「月刊文學」, 第2卷第6号(1969.6), PP.65 - 66.

33) 上掲作品, PP.67 - 68.

의 唯一한 血肉인 混血女 <낸시>를 韓國人 青年과 結合시켜 故國으로 보내려는 精神을 表現한 小說이다. 평생 異國에 살면서 언제나 故鄉을 잊을 수 없었던 한 老人의 生涯가 그려지고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人生을 整理하는 길이 息과 孫女를 故國에 보내는 것이다.

『이 息과 낸시를 내 고향으로 메리고 가 줄 사람은 바로 자네야, 나도 물론 고향으로 가서 떠돌고 싶지만 난 먼 여행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고 몸이 쇠약해…… 자네 고향으로 가거덜 큰 농장을 사라구…… 그래 가지고 이 화분속에 칠십년이나 갇혀 있었던 息을 그 농토에 부어 섞으라구, 이 息 속에는 내 혼이 깃들어 있으니까』³⁴⁾

한 사람의 一生이 파노라마로 그려지고 窮極的인 故鄉과의 連帶를 찾으려는 것이다.

「죽고 싶어하는 女人」은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삶과 죽음은 어떤 것이냐 하는 이 作家의 생각이 表現되고 있다. “옛날 야만인들이 먹을 것, 거처할 장소, 입을 옷, 그리고 사랑과 미움만으로 서로 죽였는데 현대인은…… 신앙상의 의견이 상이, 사상상의 의견의 차이”³⁵⁾ 때문에 人間이 人間을 죽여야 하는 宿命을 지니고 있다고 人間을 說明하고 있다. 더구나 이런 “인간본질의 정수는 절대 불변”³⁶⁾ 이라고 慨歎하고 있다. 人間에 대한 不信과 嫌惡의 表白이다. 人間의 永生不死도 단조롭고 지겨운 것이고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것이 人間이 걸어야 할 길이라고³⁷⁾ 얘기하고 있다.

4期の 이 作品은 그의 晩年에 發表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晩年에 들어와서 삶과 죽음, 어떻게 사는 것이 人間다운 삶이냐 하는 물음에 대한 大답으로 쓰여진 小說이다.

이 時期의 小說은 朱耀燮이 60以後에 發表한 作品이다. 人生을 살아오는 동안 보고 듣고 느꼈던 人生에 대한 問題를 小說化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人間의 屬性과 本質을 새롭게 解釋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미 常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確認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다.

Ⅲ. 技術의 諸相

1. 作中人物

作家가 어떤 人物을 選擇하여 그의 小說 속에 登場시키느냐 하는 것은 小說의 主題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그 作家가 어떤 人生, 어떤 問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것도

34) “열중의 息”, 『現代韓國短篇文學全集』, A·15, P.323.

35) “죽고 싶어하는 女人”, 『現代文學』, 163号 (1968.7), P.94.

36) Loc. cit.

37) “죽고 싶어하는 女人” P.95.

알 수 있다.

한 作家의 作中人物들을 類型別로 나누는 일은 대개의 作家들의 作品에는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作品世界가 크게 변모를 보이는 대신 深化 擴大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朱耀燮은 作品世界의 深化 擴大보다 여러 차례 變化를 거치고 있다. 따라서 作中人物들을 분류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다. 그것은 그의 關心이 分散, 作品世界의 多様性에서 온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강한 個性을 지니고 있거나 典型的인 人物도 드문 때문이기도 하다.

편의상 그의 作中人物들을 分類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A型: 우보(殺人), 아쟁(人力車꾼), 어멈(개밥), 어머니(추운밤), 천보(雜草), 언년이(醜物), 원구모친(代書) 등.

B型: 양귀자(殺人), 주인노파(殺人), 주인아씨(개밥), 박만용(새죽음), 김아부(새죽음), 탐관오리와 모리배(大學教授와 謀利輩 및 解放一週年), 아버지(女大生과 밍크코트) 등

C型: 나(代書), 나(奉天駅食堂), 나(할머니), 교수(二十五年), 教授(大學教授와 謀利輩), 나(열중의 흙), 남편(解放一週年), 칠규(불느냐 멀어지느냐) 등

D型: 옥희엄마(사랑손님과 어머니), 사랑손님(사랑손님과 어머니), 영숙(아네모네의 마담), 전문학생(아네모네의 마담), 진형(왜 왔든고) 등

A型의 人物들은 貧窮 속에 있는 一般民衆이고 開化의 洗礼와 教育을 전혀 받지 못한 인물이다. 教育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新教育만이 아니라 在來의 儒敎教育마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貧窮과 無知가 그들을 支配한다. 이런 人物들이 開化期社會에 어떻게 反應하는가를 보여준다.

그들은 먹는 일이 무엇보다도 時急하다. 그러나 그것을 解決할 能力조차 없어 몸을 팔 수 밖에 없거나 (<우보>), 개와 먹을 것을 다룰 수 밖에 없다(<어멈>). 그렇지 않으면 굶고 병들어 죽을 수 밖에 없다(<어머니>). 먹는다는 것은 人間의 基本的인 生存要件이요, 그것은 모든 生物에 共通된다. 그들은 人間다운 生存方式과 먹을 것을 획득하는 방법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에게 人間社會에 存在하는 倫理, 道德, 体面등을 운위할 상황조차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原因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만큼 知的 訓練이나 思考의 訓練이 되어있지 않다.

대체로 이런 人物들은 20年代 그의 初期小說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 初期의 作品世界의 主題를 形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貧窮의 문제와 人間다운 삶에의 문제를 提起한 初期小說의 主題를 구현하는데 적절한 人物이다.

B型의 人物들은 이 作家가 否定的으로 그려진 人物이다. 이들은 利益과 慾望을 위해서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다. 어린 少女의 純潔을 보리 서 말에 사서는 慾望을 채우고 버리거나 (<양귀자>), 少女들의 몸값을 가로챌 수 있는(<주인노파>) 인물이다. 人間다운 同情과 사랑의 情緒가 결핍되어 있다. 人間보다 개가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주인아씨>)

의 경우도 비슷하다.

<박만용>과 <김아부>, 그리고 <아버지>등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致富하거나 權力에 아침하여 그들의 慾望을 이루려는 인물이다. 解放後의 그의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謀利輩와 탐관오리등도 같은 계열의 인물이다.

이들에게는 社會正義나 倫理意識이 전혀 없다. 극단의 利己的, 反社會的 인물로 社會의 混亂이나 國家의 混亂을 이용하여 私利私慾을 채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C型의 人物들은 대체로 作家의 分身이거나 (「첫사랑값」, 「奉天飯店」, 「할머니」의 주인공들) 美國留學生 (「열중의 흙」의 <나>), 解放後 滯國한 知識人 (「大學教授와 謀利輩」 「解放一週年」, 「二十五年」의 人物) 들이다. 知的 訓練을 받은 인물들로 對人間, 對社會에 대한 批判의 意志가 있는 人物들로 특히 그의 3期의 小說의 主題를 形象化하는데 寄與하고 있다

D型의 인물들도 開化의 洗禮와 知的訓練을 받은 人物이다. A型처럼 生存을 위해 밑바닥 生活을 할 필요도 없고, B型처럼 反社會的 反倫理的 行爲를 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人間의 基本的 慾求요 情緒인 異性에 대한 그리움이 그들의 行動의 基底가 되고 있다. 그런 異性에 대한 그리움이 어떻게 投影되고 그것이 어떤 結果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人物로 사랑과 挫折이라는 第2期의 小說의 主題를 形象化하는 데 寄與할 수 있는 적절한 人物들이다. 특히 <육희엄마>와 <사랑손님>의 사랑은 30年代 韓國社會의 사랑의 한 樣相으로 그들이 소극적이고 倫理에 얽매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30年代 韓國社會를 사랑의 風俗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적절한 人物로 보인다. 그를 바라보는 作家의 視線도 사뭇 同情的이고 愛情어린 것이다.

그의 인물중에서 小說史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은 <육희엄마>일 것이다. 철저하게 儒敎倫理를 지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랑의 자유를 마음놓고 구가할 수도 없는 30年代 韓國社會의 典型的 人物이다. 사랑하면서도 倫理에 얽매어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 인물이 이 인물이고 또 그것이 讀者들에 說得力을 얻고 있다.

朱耀燮은 小說이 새로운 人物의 創造라는 점을 前提한다면 그 점에서 뛰어난 作家는 아닌 것 같다. 그가 創造한 人物들이 대체로 平凡한 人物이요, 人間性의 깊이와 多樣性을 보여주는 인물이 없다.

2. 背景과 觀點

小說史의 觀點에서 볼 때 그의 小說의 한가지 特徵은 背景의 擴大에 있다는 점이다. 間島를 背景으로 한 小說들은 20年代의 崔曙海, 30年代의 安壽吉等に 의해서 더러 나왔다. 그러나 中國本土를, 北京이나 上海등을 背景으로 한 小說과 美國까지 背景을 擴大한 小說은 별로 볼 수 없다.

「人力車꾼」, 「殺人」, 「첫사랑값」, 「奉天飯店」, 「복소리 뚱뚱」, 「왜 왔든고」, 「二十五年」, 「進化」등은 中國을 背景으로 했거나 中國이 部分的인 背景이 된 小說이다. 이

것은 李朝小説에서 中國을 背景으로 한 小説以後 처음으로 問題가 될 수 있다.

「세죽음」은 美國을 背景으로 했으며 「旅愁」는 英國, 仏蘭西등 主人公의 여행지의 移動에 따라 배경도 이동된 小説이다. 長篇인 「亡國奴群象」은 中國과 日本까지 背景을 擴大하고 있다. 이런 背景의 擴大는 韓國人들의 生活領域이 擴大된 것과 關係된 것이고, 또 이 作家 自身이 空間의 體驗의 擴大에서 온 結果일 것이다.

이런 背景의 擴大가 모든 作品의 깊이를 갖게 하는데 크게 寄与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열죽음의 흙」같은 作品은 祖國을 떠나 죽음을 앞에 둔 한 老人의 이야기를 絶실하게 伝達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그의 小説中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技法에 있어서 상당히 洗練된 作品이다.

副人物이 등장해서 主人公의 이야기를 하는 方法 1人称 b型 곧 1人称 觀察者 叙述이면서도 同時代의 作家의 手法와 비교할 때 뛰어난 점이 있다. 거의 같은 時期에 나온 金東仁의 「붉은산」(1932)과 비교해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난다.

두 小説 모두 作中에 登場하는 다른 人物을 觀察하고 그것을 叙述하는 方法이다. 그러나 그 洗練度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는 여(餘)가 XX촌에 가기 일년 전쯤 빈 손으로 이웃이라도 오듯 후덕덕 XX촌에 나타났다 한다.(中略) 그의 장기는 무전이 일수며, 싸움도 잘하고, 뜨집 잘 잡고, 칼부림 잘 하고, 색서에 게 덤벼들기 잘 하는 것이라 한다.³⁸⁾ <『붉은산』(加點=筆者)>

이윽고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외할머니는 무어라고 중얼중얼 이야기하는 모양이었습니다.(中略) 나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나서 영영 울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갑자기 어디 가까운 데서 어머니의 외마디 소리가 나더니 벽장문이 벌컥 열리고 어머니가 달려들어서 나를 안아버렸습니다.

『요 망할 것아』

하면서 어머니는 내 엉덩이를 댕댕 때렸습니다. 나는 더욱 더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나를 끌어안고 어머니도 따라 울었습니다.³⁹⁾ 『사랑손님과 어머니』

두 作品 모두 作中에 參與하는 人物 <余>와 <나>(옥희)를 통해서 觀察한 것을 叙述하고 있다. 그러나 前者는 대체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을 서술하는 것이요, 後者는 <나>가 직접 관찰한 것을 叙述하고 있다. 또 前者가 主人公을 서술할 때는 全知的 觀點으로 돌아가서 叙述하고 있지만 後者는 話者인 <나>와 <어머니>라는 密接한 母子間의 關係를 전체

38) 東仁全集, 8, (서울: 弘宇出版社, 1964), P.139.

39) 現代韓國短篇文學全集, A-15, P.91.

해 놓고 서술하고 있다.

「붉은산」의 〈余〉는 小說의 主題를 드러내는데 크게 寄與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主題를 드러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 話者와 主人公 사이의 密接한 관계, 특히 순진한 어린이를 設定하여 이야기를 進行시키고 있다는 점, 어린이의 눈을 통해서 본 어른들의 靜的 사랑의 描写라는 점에서 그 技巧가 뛰어나다.

IV. 結

朱耀燮의 作品世界에서 20年代는 그가 20代의 青年이었을 때다. 그는 이때 貧窮의 問題에 穿鑿하여 그 問題의 意味를 探索했다. 이것은 당시의 文壇狀況과도 關係가 있는 것으로 文學의 素材를 貧窮에서 찾고, 作中人物을 밀바다 生活을 하는 民衆들을 選擇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崔曙海, 玄鎮健 등 다른 作家들의 作品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당시의 비참한 民衆들의 삶에 作家들이 關心을 기울인 結果이다. 따라서 貧窮의 問題를 探索했다는 것은 朱耀燮의 독특한 作品世界의 提示는 못된다. 그러나 貧窮의 문제에 대한 提示에 있어서 朱耀燮은 韓國에서 中國의 上海까지 팔려가서 창녀가 된 한 少女의 이야기를 통해 植民地社會의 深層部를 파헤쳤다는 점, 貧窮의 問題를 韓國內部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아쟁〉이라는 中國人 人力車꾼을 作中人物로 선택하여 國際都市의 뒷골목을 그리고 있는 점은 독특한 것으로 評價될 것이다.

이어서 中國의 北京에 있는 大學에서 敎鞭을 잡고 結婚해서 家庭을 가진 安穩한 生活을 한 30年代, 그리고 그 自身도 30代인 이 때에는 現實이나 社會問題보다도 個人, 特別히 사랑이라는 問題에 關心을 기울여 佳作인 「사랑손님과 어머니」등을 발표했다. 이것은 文學世界의 急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변모이다. 人間의 原初的인 感情이요, 情緒인 〈사랑〉의 問題를 소극적인 性格의 人物과 倫理를 배경으로 잡아놓고 作品으로 形象化하여 오늘날에도 佳作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의 文學은 삶과의 치열한 對決이 아니라 담담하게 人生을 觀照하는 자세를 전지하고 있다.

解放後 社會의 混亂을 틈타 謀利輩와 貪官汚吏들의 非理를 목격하면서 希望을 갖고 掃蕩한 自己의 生活이 계속 貧窮으로 苦痛을 받게 되자 知識人社會의 非道德的인 生態를 목격하면서 그것을 告發 批判하는 姿勢로 突變한다. 그 자신이 生活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社會로 눈을 돌려 이런 현상이 어째서 일어나는가를 探索한다. 現實에 대한 關心이 많아지고 그 속에 潛在한 貧窮의 問題에 눈을 들린 것은 20代의 그의 作家精神의 變容된 모습으로 再現한 것이다.

그의 晩年의 作品들은 대체로 人生派의인 것이다. 어떤 삶이 價值있는 삶이나, 人間이란 얼마나 不完全하고 非倫理的, 非道德的인가 하는 것을 觀察하고 담담하게 그것을 記錄했다. 그것은 30年代 그가 作品을 쓸 때의 文學精神과도 相通한다. 그는 그 자신의 生活의 起伏에 따라 關心

의 起伏도 變化했음을 보게 된다. 30年代의 安穩한 生活, 4.50年代의 不安과 混亂속의 生活 60年代以後 生活의 安定과 마음의 여유가 그대로 그의 作品에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한 作家의 生活과 作品世界의 緊密性이 드러난다.

小説史의 観点에서 보면 中国등 外國까지 作品의 背景의 擴大는 그만큼 韓國人들의 生活背景의 擴大라는 점에서 韓國小説의 좁은 空間을 擴大했다는 意味를 가지며,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보여준 小説技法은 韓國小説의 技法의 洗練이라는 역할을 담당했다.

<옥희엄마>와 같은 人間像, <김아부>와 같은 人間像은 韓國小説의 人物展示場에 내놓게 될 때 하나의 意味를 獲得할 것이고, 20年代와 30年代, 그리고 40年代에 發表된 小説들은 貧弱한 韓國小説史의 幅을 擴大하는데 寄與할 素地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 Summary —

A Study on Ju Yo-sub's Short Stories

Kim, Young Hwa

Ju Yo-sub (1902-1972) is a novelist who wrote 4 novels and more than 40 short stories from his literary debut to his death. When we read his short stories, we know that his short stories underwent a change of 4 phases. 4 phases are as follows:

(1) The first phase (1921-1931): His short stories in this period express the problem of the destitute people in the colonial period. Main works of this period are "Cold Night" (1921), "A Rikishapuller" (1925), "Homicide" (1925), and "Food of a Dog" (1927).

(2) The second phase (1935-1943): His works of this period treat the problems of love—especially disappointed love in 1930's. Main works are "The Quest of the Detached Room" (1935), "The Madam of Anemone Tea-room" (1936), and "An Ugly Women" (1936).

(3) The third phase (1946-1958): The peculiarity of his works in this period is his keen sense of history and critical mind of the society and social reality. Main works are "A Professor and a Profiteer" (1948), "25 Years" (1960), and "One Year after Liberation from Japan" (1959).

(4) The fourth phase (1960-1970): His works of this period express the mind of mortals and how to live. His works of this period are "Three Kinds of Death" (1965), "The Handful of Soil" (1967), "A Woman Who Wants to Die" (1968), "I am a Ghost" (1969), and "A Note Written by a Ghost Who Was Killed by an Accident" (1965).